新불교교재 〈불교개론〉 발간 본격화

조계종교육원, 3월30일 교재편찬위원회 발족해

올해 교육원 추진 중점 사업
일상 언어 풀어낸 개론될 듯
출 · 재가위원 11인으로 구성
"성찰로 수행발심 이끌 교재"



조계종 교육원은 3월 30일 새로운 불교개론 편찬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발족식 직후 가진 기념사진 촬영 모습. 사진 제공=조계종 교육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의 올해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새로운 불교개론서 발간이 본격화 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3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교육교재 편찬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교재 편찬은 승가교육기관 필수 교재인 새로운 〈불교개론〉을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원이 새로운 〈불교개론〉 편찬에 나선 것은 기존 개론서가 단순 교리 전달에 머물고 있고, 서술이 현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승가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 등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대적 불교개론서를 발간해 불교의 핵심적 가치를 사부대중에게 전하겠다는 게 교육원의 목표다. 또한, 승가 기본교육기관 필수과목 교재로 활용하며 현대적 승가상 정립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26일 열린 교육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요사업으로 소개된 바 있다.

새로운 불교개론서 편찬에 대해 당시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기존 개론서는 옛날 언어에 맞춰져 있어, 기초적인 교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대적 언어와 사고로 정립한 불교 개론서를 발간해 승가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일반 대중도 해당 개론서를 접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일상의 언어를 불교에 적용해 새로운 불자상, 승가상을 만들어 나간다면 한국불교는 진일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총 11명의 출 · 재가자가 편찬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장에는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부위원장은 교육부장 서봉 스님 · 불학연구소장 보문 스님이 맡았다. 출가자 위원으로는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정덕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오인 스님, 해인사 학감 법장 스님, 운문사 교수 원법 스님이 참여하며, 재가자 위원으로는 황순일 동국대 불교대학장,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박찬욱 동국대 불교상담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발족식 이후 편찬위원들은 1차 회의를 통해 〈불교개론〉 편집 방향과 추진 일정들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중도 · 연기적 가치관 입각해 불교를 조망하는 것을 비롯해 △21세기 선의 가치와 지향점 제시 △사회적 고통에 대한 동체대비적 삶의 지향 △자연환경과 생명 강조 △승가공동체, 사부대중 공동체 강조 △현대적 계율관(윤리관) 제시 등을 편집 방향으로 정하기로 했다.

각 장마다 주요 개념에 대해 알기 쉬운 경전 자료나 조사어록, 현대 인문학 · 자연과학 등을 예시 자료로 들어, 이를 토대로 논의 · 성찰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편찬위원회는 4월 중 집필진을 선정하고 집필 의뢰를 마친 뒤 원고 마감과 디자인 작업을 거쳐 12월 중으로 〈불교개론〉을 발간한다. 이후에는 각종 승가대학 교재들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편찬추진위원장 진우 스님은 "현재 불교는 출가자, 불자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새로운 불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대인 스스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바른 가르침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불교 교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 성찰을 통해 그 내용을 체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로운 〈불교개론〉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종사 법계 심의할 원로회의 개최

조계종, 4월8일 66차 소집공고
백양사 성오 스님 의원 선출도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 ·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를 위한 원로회의가 4월 8일 열린다. 이번 원로회의에서는 신임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성오 스님에 대한 선출 논의도 진행된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최근 제66차 원로회의 소집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원로회의는 4월 8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대종사(비구) · 명사(비구니) 법계 특별전형 신의의 건과 신임 원로의원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다룬다.

신임 원로의원 후보는 나주 심향사 주지 성오 스님(제18교구 백양사)이 추천됐다. 중앙종회는 지난 3월 23일 제220회 임시회에서 4월 14일자로 임기만료되는 원로의원 암도 스님의 후임으로, 성오 스님을 만장일치 추천했다.

원로의원은 원로회의법에 따라 중앙종회 추천으로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도 진행된다. 심의 대상자는 중앙종회가 제220회 임시회에서 추천 동의한 대종사 22명 · 명사 7명 등 총 29명이다.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 명사 법계는 법계법에 따라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 종정 스님이 품서한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9교구 화엄사 주지에 덕문 스님 임명

"신도시포교 · 선암사 문제 노력"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3월 31일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에 덕문 스님을 임명했다. 〈사진〉

원행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한 후 "교구 스님들에 대한 승려복지에 대해 많은 배려에 노고가 많다"며 "앞으로 신도시 포교를 비롯한 교구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 또한 인접해 있는 선암사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 고 당부했다.

이에 덕문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의 배려 덕분에 교구 스님들이 안심하고 공부에 정진할 수 있었다"며 "지역포교가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암사 정상화에 대해서도 "선암사 주지 소임을 맡은 적이 있었던 마큼,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한편 덕문 스님은 이날 아프리카 보리가람농업기술학교 발전과 자비나눔, 승려복지기금으로 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지정기탁했다.

송지희 기자

4.7보궐 종교중립 촉구

종평위, 3월 25일 공문 발송

4월 7일 예정된 서울 ·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종교평화위원회가 종교편향 예방에 나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는 3월 25일 선거에 참여한 주요정단과 후보, 관할 지자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종교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공문은 선거를 앞둔 후보자와 당선자를 대상으로 정교분리 원칙 준수, 그리고 종교간 차별과 혐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발송됐으며, 관할 선관위에는 종교갈등을 부추기는 후보자들의 발언이나 공약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요청했다.

종평위는 "이번 보궐선거가 상호공존과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중앙권한 지방교구청으로 점진 이양"

도진 정사, 3월 31일 간담회서
경북교구 신설로 8개교구 전환



"중앙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지방 교구청과 심인당(사찰) 중심의 포교 교화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통리원장 도진 정사〈사진〉는 3월 31일 서울 월곡동 진각문화전승원 4층 회의실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방 교구청과 심인당으로의 권한 이전을 천명했다. 실제로 진각종의 가장 큰 변화는 지방 교구로의 권한 이양이다. 특히 대구 교구를 대구와 경북 교구로 나눴다. 지난 2월 경북 교구의 신설로 대구 교구 산하 35개 심인당 중 14개 심인당이 경북 교구로 분할되면서, 기존 7개 교구에서 총 8개 교구 체제로 전환했다. 진각종단의 첫 교화 출발지인 대구 교구는 종단 각 교구청 가운데 가장 범위가 넓어 이번에 교구를 분리함으로써 교구청과 각 심인당 간 소통 거리를 좁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포교 교화가 활성화 되려면 교구청과 심인당 중심으로 바뀌어야 종단이 발전할 수 있다고 평소 생각해 왔다"며 "70년 넘게 중앙 통리원에 집중된 권한들을 지방 교구청으로 이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택트 코로나 시대 포교와 교화의 생존 전략을 묻는 질문에 도진 정사는 "우리 진각종은 다행히도 심인당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각 가정서 불사와 불공을 하는 전통 수행법의 체계가 확립돼 있어 타격이 덜 하다"며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라이브 불사 등을 준비 중"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도진 정사는 "코로나 사태가 꼭 아니더라도 현대사회서 미디어 영상 포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종단도 미디어 영상 포교에 집중 투자 육성해 전법 교화에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진 정사는 "앞으로 재가 신교도 모임인 총금강회의 위상을 높이고 교화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예산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며 "총금강회의 종단 운영 참여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기획위원회에 총금강회 신도 3명도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진 정사는 종조인 회당대종사 탄신 120주년이 되는 내년에 종조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의 성역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코로나 안정돼 봉축 의미 확산 기대"

김제남 수석, 원행 스님 예방서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전한데 이어, 올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원만한 봉행을 위한 코로나 안정을 발원했다.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3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사진〉 또 "내일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올해 연등회가 유네스코 지정 이후 첫 개최인만큼,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상황이 안정돼 봉축행사가 더 큰 의미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도 "정부가 코로나 이후 잘 대응해 왔는데 백신 접종이 늦어져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 시작된다니 다행이다"며 "불교계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특별히 더 신경써서 방역지침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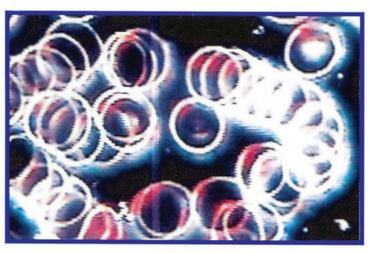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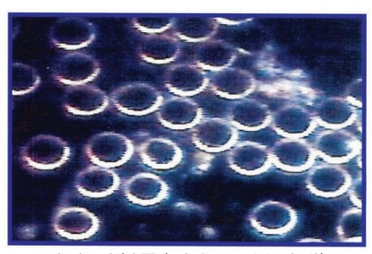
국민건강 · 인류건강을 위한
"비누로 손 · 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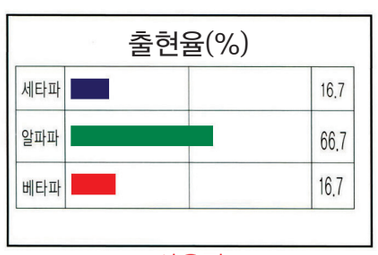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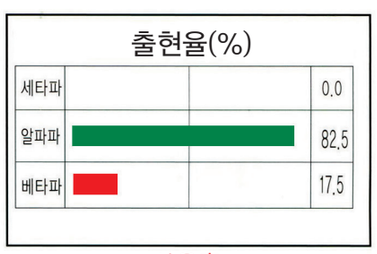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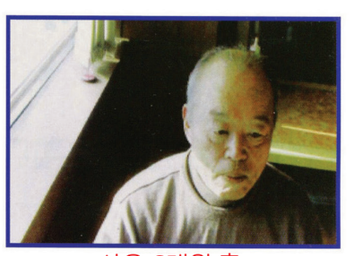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